



일시출하 어렵고, 수수료 요구, 잔량 끊어먹기식 성행

취재/이창훈

일 반공산품과는 달리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고 보관상에도 까다로운점이 많은 축산업의 경우 유통체계의 확립이 타산업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계유통의 경우 소나 돼지와는 달리 정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 생산·유통과는 무관한 중계인들이 유통에 관여,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중계인들은 소규모 육계농장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농가가 유통정보에 어둡다는점과 도

매상들이 전국을 무대로 육계를 구입하고 있어서 출하 예정일 등 지역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하나에 전화기 1~2대, 여직원 한명을 두고 단순히 중계인 역할만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매상들한테만 수수료를 받던 것을 요즘은 생산농가에 까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의 육계출하는 거의 대부분 일시출하

(all-out)가 어렵고, 2~3차례에 걸쳐 출하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하되는 닭들이 중계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상인에게 넘기는 경우 생산농가나 도매상 둘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으로 수수료에 따른 문제점은 없지만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고, 도매상들과 직접연결이 되더라도 이들 도매상들이 처분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일시출하(all-out)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생산농가 측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육계농가가 중계인을 통



해 출하하게 된다.

이들 중계인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크게 마련인데 천안, 이천 등의 일부지역에서는 kg당 10원 정도의 수수료를 농장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도매상들한테만 수수료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대신 끊어먹기식으로 수수료를 대신하기도 한다. 즉 총 출하중량이 13,500kg으로 가정할때 결재시 13,000kg만 결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티측에서 육계를 구입할 때에도 중계인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인티측에서는 시세보다 kg당 20~50원씩을 더 주고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생산농가측에서 모를 경우 중계인들이 전액을 가로채기도 하고, 알고있을 경우에는 나눠먹기를 강요하는데 생산농가들은 일시에 출하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다음출하때를 위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계군이 질병에 감염되거나 적정출하일을 놓쳤을



때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즉, 요즘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ND에 계군이 감염되었을 경우 도매상들은 도계장에서 계류시에 폐사량을 감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총 출하중량에서 30%를 제외하고 결재하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질병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30%제외라는 이중부담을 지게되고, 적정출하일령을 놓쳤을 경우 계군의 평균체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경우에도 도매상인들이 도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결재시 시세보다 마리당 30~50원씩 빼주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끊어먹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농가들은 큰 손해를 보게됨으로 대책없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육계업의 경우 시설낙후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농장의 소규모에 따른 재정난, 질병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열병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다 중계인들까지 가세하여 유통상의 불합리를 조장하고 있어 생산농가들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몇몇 도매상인들이 ○○유통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농장과 직거래를 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상인단체라는 점에서 생산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자칫 이용당할 위험을 안고 있어 축산단체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한 유통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기**